

주일 전례 봉사자					
구 분		9월26일(연중 제26주일)		10월3일(연중 제27주일)	
새벽 미사	해 설	안정준 바오로		이상희 로사	
	1독서	황숙자 베로니카		박안홍 시몬	
	2독서	김인숙 세실리아		손수향 카타리나	
교중 미사	해 설	이정애 실비아		배점미 안나	
	1독서	최해정 세실리아		김재실 에바리스또	
	2독서	조점연 로사		한선주 제노베파	
화 답 송	 주 님 의 규 정 을 바 르 니 마 음 을 기 뻐 게 하 네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9월27일(월)	9월28일(화)	9월29일(수)	9월30일(목)	10월1일(금)
해설	손 요안나	임순자 안나	황숙자 베로니카	김재실 에바리스또	한선주 제노베파
독서	김정숙 스텔라	겸손하신 모후	순결하신 모후	정의의 거울	천상의 모후

9월26일 (연중 제26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안정준(바오로), 조양규(미카엘)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시설관리분과
	미사안내	구역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순교자의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오일규(루카)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주양원(요셉) 후: 신강순(도미니코)
10월3일 (연중 제27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오일규(루카), 김정철(바오로)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사회복지분과
	미사안내	시설관리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평화의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박종탁(알폰소)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박안홍(시몬) 후: 백죽엽(예로니모)

사랑터

제1751호

연중 제 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2021년 9월26일

주 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북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010-4796-3039(선종단장)
전 화: 345-7086(사제관)/ 343-2446(수녀원)/ 343-2018(사무실)/ 010-2564-6202(선종부단장)
미사안내: (월) 6:30/ (화,목) 19:30/ (수,금) 10:00/ (토) 어린이16:00, 18:30 / (주일) 6:30, 10:30

- ‘은총성경쓰기-시서와 지혜서’ 완필증 수여 -9/26(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일기노트 및 필사노트 완필자에 한함)
- 병자영성체 안내 -일시: 10/7(목)10시출발(사회복지분과 동행) -신청: 사무실
- 사목협의회 10/3일 교중미사 후
- ‘은총성경쓰기-예언서’ 신청 -10/13(수)까지 사무실로 신청
- 다음 주 군인주일 2차 헌금 안내 -10/3일은 군인주일로 2차 헌금 있습니다.
- 전입을 환영합니다. -김근혜 세실리아(5구역 중흥1반)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8,330,000원 -위 예물은 은퇴사제 기금으로 쓰입니다.
- 2022년 본당 달력 광고 신청받습니다. -신청: 사무실

- 교구청 신축모금을 위한 봉헌서 제출 -일시: 목표달성까지 신축기금 봉헌서를 작성해서 제출 -납부: 교무금 12개월분 이상 약정하여 22년말까지 봉헌 -개인이나 단체의 특별 기부금도 환영합니다.

교구청신축기금 본당계좌
농협843-01-070968
(재)마산교구천주교회 진영성당

교구청신축모금 : 9월18일(토)-9월24일(금)	*본당 1년 교무금 총액 204,000,000원(343세대)
엄복순 아셀라(9), 백죽엽 예로니모(1-3), 최성환 베드로 이승욱 요엘(4-5), 김선미 베로니카(완) 이용범 프란치스코(완)	*현재 봉헌서 제출 총액 109,702,000원(151세대)
이번주 봉헌액: 1,020,000원 (누계:68,311,936원)	

교 무 금 : 9월18일(토)-9월24일(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박채화(테레사)	1-12	오수금(클라라)	5-12	신미자(헬레나)	10-12
김주홍(벨라도)	9-10	윤무출(베드로)	9	엄복순(아셀라)	9
성상경(베네딕도)	8-9	신성철(안토니오)	8-9	고영옥(테레사)	10
김민정(루시아)	5-9	박두리(아네스)	9	박순연(마리아)	9
김대환(대건안드레아)	9	정병희(레오나르도)	9	박종술(안드레아)	9
구슬이(에메렌시아나)	9	최윤정(헬레나)	9	이원호(마태오)	9
이춘악(테레사)	8	서춘자(그라시아)	9	전채홍(안토니오)	9
양귀남(마리아)	8	김종호(요한)	9	김희덕(바오로)	9
이승옥(요엘)	9-10	신희락(요아킴)	10		
교구사업모금(2021년 배정액 2,790만원중 941만원 봉헌)					
박채화(테레사)	완	성상경(베네딕도)	8-9	김민정(루시아)	5-9
신희락(요아킴)	10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 참여자		306명
			교무금		1,758,000원
			주일헌금		1,783,000원
			교구사업모금		75,000원
			성소후원금		63,000원

성전(聖傳)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성서라 하고 기록되지 않고 입으로 전해오는 것을 성전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하신 말씀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성서와 성전을 비교해 볼 때 성서 이 전에 하느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에 성전이 먼저 있었다. 그러므로 성서의 원천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적으로 보아서도 신약 성서의 제일 첫권이 나온 해가 기원후 약 40년경이라고 하는데 벌써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거의 10년 후였다. 그러니 그동안은 성서가 없었고 오로지 성전밖에 없었다. 또한 성서의 기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즉석에서 속기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성전도 성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성전은 주로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 진리 또는 성서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것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 준다. 예컨대 성서에 정확한 기록이 없는 연옥 교리라든지 성서에는 전연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 등이다. 그런데 가톨릭 외에 다른 개신교에서는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전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성전의 주인공인 가톨릭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

두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 집 사람들은 거만하여 저택에 있는 객실 대신 차가운 지하실의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 잠자리에 들 무렵,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그 구멍을 메워주었다. 젊은 천사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다음 날 밤 두 천사는 아주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농부인 그 집의 남편과 아내는 그들을 아주 따뜻이 맞아주었다.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침대를 내주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다. 그런데 농부 내외가 눈물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소득원인 하나밖에 없는 암소가 들판에 죽어 있는 것이었다. 젊은 천사는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우리가 그 저택 지하실에서 잘 때, 난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 집 주인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부를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벽에 난 구멍을 봉해서 그가 금을 찾지 못하게 한 것일세.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네. 그래서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